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

성경: 창 41:39-44, 51-52, 45:5-8, 47:14-23, 50:15-21

- I.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다 — 창 41:39-44, 히 6:1상, 갈 6:8, 5:22-23.
- A. 요셉으로 예표된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 갈 4:19.
- B. 요셉은 ‘꿈쟁이’(창 37:19)였으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다(5-11절). 요셉의 두 가지 꿈(창 37:7, 9)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밝혀 주는 것이었다.
1.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간을 관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해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 비교 창 38:27-30, 마 7:1-5, 벰전 3:8-9.
 2.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비교 행 26:19).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창 37:18-31) 정욕에 빠졌다(38:15-18).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억제했고 정욕을 정복했다(창 39:7-23).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 단으로서 처신하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했다.
- C.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묘사된 천국 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계시된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한다(마 5:21-32).
- D.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이다(행 7:9).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권위, 곧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창 39:2-5, 21-23).
1.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주님께 의해 모든 일이 잘되었다. 요셉은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권으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변명을 누렸다.
 2.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변성을 누렸을 때, 요셉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 창 39:4-5, 22-23.
- E.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창 40:8). 결국 요셉은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41:9-13),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되었다(14-46절).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었다.
1.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는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이 체험한 것 이상의 것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이 성취된 것에 따라서 말하기보다 그 이상 자체에 따라서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록 우리의 이상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상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이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성취되었다.
 3.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절대성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 행 26:16-19.

- F.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가져가거나 죽음을 가져갈 것이다(고후 2:14-16). 요셉은 술 맡은 시종에게는 복직을, 떡 맡은 시종에게는 처형을 가져갔다(창 41:12-13).
- G.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하 감옥’ 안으로 넣으실 것이다.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보좌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중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졸업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 — 엡 3:1, 4:1, 약 1:12.

II.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창 49:22)은 많은 가지들(요 15:1, 5)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뻗어 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사 11:1-2)의 예표이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씬은 열매 맺음의 근원(시 36:9, 렘 2:13)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하면서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빌 1:20, 4:22, 몬 10).

- A.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다. 이 점에서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히 2:9)과 선물(시 68:18, 행 2:33)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창 41:42).
 - 1. 반지와 옷과 금사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받으신 선물들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물들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셨다 — 창 41:42.
 - a.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위에 도장 찍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 행 2:33, 엡 1:13, 4:30, 비교 눅 15:22.
 - b.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고전 1:30, 비교 시 45:9, 13, 눅 15:22), 또한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 낸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빌 3:9, 시 45:14, 계 19:7-9).
 - c.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비교 행 5:32).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다(창 41:42, 비교 아 1:10, 잠 1:8-9).
 - 2. 영적 체험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위하여 그 영의 도장 찍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의의 옷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한다(갈 2:20, 빌 1:20-21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목에 금사슬이 걸려서 의지가 성령께 정복되고 굴복되어야만 한다.
- B.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고 승천의 위치로 이끌린 후에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 얻으신 교회를 묘사한다(창 41:45). 요셉은 그의 만아들의 이름을 (‘잇게 하다’를 의미하는) 므낫세라고 불렀고, 둘째 아들을 (‘열매가 배나 많은’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잇게 해 주셨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배나) 많이 낳도록 해 주셨구나.”(51-52절)라고 선포하였다.

III.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다 — 롬 5:17, 21, 14:17-18, 비교 고후 3:17-18, 딤후 4:22, 계 4:1-3.

- A. 비록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도록 그들을 합당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다루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것은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함께 사는 단체적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생명은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 창 42:9, 24, 43:30-31, 45:1-2, 24.
- B. 하나님의 제한 아래 산 요셉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다 — 요 5:19, 30하, 7:16, 18, 14:10, 마 8:9-10.

- C.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평온한 생활, 깨어 있는 생활, 분별 있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다 — 창 45:24, 마 16:24, 대하 1:10, 사 30:15상, 빌 1:9, 딤후전 5:1-2, 살전 3:12, 4:9, 살후 1:3, 롬 12:10, 요일 4:9, 히 13:1.
- D.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 마 16:24, 비교 26:53, 고후 2:12-16.
- E.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라고 말했다(창 45:5, 7, 50:19-21, 비교 41:51-52).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실재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다(창 45:5-8, 50:15-21).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의 영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IV.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다(영한 동번 찬송가 635장,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5장).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가, 곧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 자신을 지불해야 했다 — 창 47:14-23, 비교 계 3:18.

- A. 돈은 편익을 나타내고, 가축은 생계 수단을 상징하며, 땅은 재산을 나타낸다. 우리가 분배하는 분이 신 주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편익과 우리의 생계 수단과 우리의 재산을 드려야 한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 공급을 그분께 받게 된다.
- B.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양식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산출하는 씨앗을 비롯하여(창 47:23) 가장 좋은 몫을 주님께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 곧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레 1:4).
- C.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중 최상의 몫을 누리게 된다.

V.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 창 49:25-26, 신 33:13-16, 계 21:5.

- A. 변화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이다.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빛남의 절정으로서 축복하는 삶이었다 — 잠 4:18, 히 11:21, 창 47:7, 48:15-16.
- B.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시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낡은 것이지만,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새롭다(고후 5:17).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놓여져, 우리가 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4:16, 롬 12:1-2).
- C.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움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께서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다.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축복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타락에서 온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 엡 5:20, 살전 5:16-18.